

2016.6.18. 시행 지방직 9급 국어 시험 정답 및 해설

1	②	2	③	3	①	4	②	5	④
6	③	7	④	8	④	9	②	10	④
11	③	12	②	13	①	14	③	15	④
16	①	17	②	18	③	19	③	20	②

1. [문법/형태론/합성어] 난이도 下
비통사적 합성어는 첫째, 용언의 어간+ 명사 / 둘째, 부사+ 명사 / 셋째, 용언의 어간+ 용언의 어간인 경우를 일컫는다.

- ② 덮밥(용언의 어간+ 명사), 질푸르다(용언의 어간+ 용언의 어간)
[오답풀이]
① 열쇠(어간+ 명사 - 비통사적 합성어) / 새빨강다(파생어)
③ 감발(어간+ 명사 - 비통사적 합성어) / 돌아가다(통사적 합성어)
④ 젊음이(통사적 합성어) / 가로막다(통사적 합성어)

2. [어문 규정/한글 맞춤법] 난이도 下
③ 들른(○) - 기본형 ‘들르다’ / 거여요(○)/거예요(○) : 복수표준어
[오답풀이]
① 치뤄야(×) → 치러야(○) 기본형 ‘치르다’(으 탈락 동사)
② 뒤쳐진(×) → 뒤쳐진(○) 기본형 ‘뒤쳐지다’
④ 잠귀(×) → 잠가(○) 기본형 ‘잠그다’(으 탈락 동사)

3. [어문 규정/한글 맞춤법/띄어쓰기] 난이도 中
① 십여 년 전에(○)
[오답풀이]
② 정한대로(×) → 정한 대로(○) :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 ‘대로’는 띄어 쓴다. / 수밖에(○) : 조사 ‘밖에’는 붙여 쓴다.
③ 수정 요청시(×) → 수정 요청 시(○) : 의존 명사 ‘시(時)’는 띄어 쓴다. ㉠ 인력 보충 시, 규칙을 어겼을 시는 / 그러나 ‘비상시’ 같은 단어는 합성어 한 단어로 인정하여 붙여 쓴다. [구별하기 어려운 띄어쓰기 문제이나, 뒤의 ‘재조정되어야’가 판별하기 쉬우므로 답을 고르는 데 어려움은 없다.]
재조정 하여야(×) → 재조정하여야(○) : 접미사 ‘-하다’는 어근에 붙여 쓴다.
④ 추진력 마저(×) → 추진력마저(○) :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4. [작문/고쳐 쓰기] 난이도 中上
② ‘그러나’ 앞 내용은 개인적인 창의적 아이디어를, 뒤 내용은 개인의 창의성을 넘어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교육의 중요성이 더 중요함을 기술하였으므로, ‘그러나’의 사용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사고방식을 ‘탈피하는’으로 고치는 것이 문맥에 적절하다.
③ 더욱 중요한 것은 ~ 길러진다는 점이다 : 이렇게 고쳐야 주술 호응이 적절하다.
④ 더욱 중요한 것은 환경과 교육이라고 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따라서’라는 접속어로 보아, ‘환경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글을 맺는 것이 적절하다.

5. [어휘/한자 독음] 난이도 中
否 : 아닐 부 / 막힐 비 - 양쪽으로 읽힌다.
④ 否運(비운) 막힐 비, 운수 운 - 막혀서 어려운 처지에 이른 운수 / 불행한 운명
[오답풀이]
① 否認(부인) : ‘인정’의 반의어 ② 否定(부정) : ‘긍정’의 반의어
③ 否決(부결) : ‘가결’의 반의어

6. [독해/내용 파악] 난이도 中上
일견, 수험생을 당황하게 만드는 출제이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①, ②, ④는 ‘언어의 본질’에 대한 언급임을 알 수 있다. ③이 동떨어진다.
‘생각에는 말 외에도 다른 것이 있다.’ 즉, ‘감정’이 있다.
③은 소설의 언어 표현이 주는 감동을 진술하였으므로 밑줄 부분의 예로 적절하다.

- [오답풀이]
① 언어의 유래 ② 언어의 자의성 ④ 언어의 분절성 / 사회성

7. [화법/토의 양식의 특징] 난이도 中
④ 찬반 입장을 나누어 이야기한다는 내용은 지문에 없다. 찬반 입장을 나누어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은 토의가 아니라 토론이다.

- [오답풀이]
① 패널 토의와 심포지엄의 형식상 공통점에 해당한다.
② 토의는 어떤 공통된 문제에 대해 최선의 해결안을 얻기 위함이 목적인다고 첫 문장에 나온다.
③ 심포지엄은 토의자가 토의 문제의 하위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발표할 수 있다.

8. [문학/소설 구절의 함축적 의미] 난이도 中
‘야성? 힘? 귀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감정의 재뿐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의 재’란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즉, ‘야성, 힘, 귀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한낱 소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답은 ④이다.

9. [문학/소설 대화 파악] 난이도 下
어른이 소년의 대화에 이끌려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듣는 대목이다. 답은 ②로 쉽게 판별된다.

10 [독해/제목 달기] 난이도 下
지문은 예전 공무원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는 글이다. 기출문제 풀이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지문의 심리학 실험은 공감하며 듣는 태도가 화자와 청자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진술하고 있다. 답은 ④일 수밖에 없다.

11. [어휘/속담] 난이도 下
③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 - **당장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넉넉지 못한 가난한 살림**일수록 **기와집을 짓는다는 뜻으로,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기 싫어서 허세를 부리려는 심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가난하다고 주저앉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잘살아 보려고 용단을 내어 큰일을 벌인다는 말.**

- [오답풀이]
① 가난한 집 신주 굶듯 - **가난한 집에서는 산 사람도 배를 굶는 형편이므로 신주까지도 제사 음식을 제대로 받아 보지 못하게 된다는 뜻으로, 줄곧 굶기만 한다는 말.**
② 가난한 집에 자식이 많다. - **가난한 집에는 먹고 살아 나갈 걱정이 큰데 자식까지 많다는 뜻으로, 이래저래 부담되는 것이 많음을 이르는 말.**
④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 **살아가기도 어려운 가난한 집에 제삿날이 자꾸 돌아와서 그것을 치르느라 매우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으로, 힘든 일이 자주 닥쳐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2. [어휘/한자어 용례] 난이도 中
② 개제(×) → 계제(○) : 계제(階梯) - 사다리라는 뜻. 일이 되어 가는 순서나 절차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오답풀이]
① 자생(自生) :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감
③ 성패(成敗) : 성공과 실패
④ 유례(類例) : 같거나 비슷한 예

13. [문법/형태론/명사] 난이도 中

① 타율, 한(限), 독보적, 기록 - 4개

관하다(동사) / ‘독보적 기록’으로 표기하면 ‘독보적’은 관형사.
 ‘독보적인’-‘인’이 서술격 조사이므로 ‘독보적’은 명사이다.

[오답풀이]

② 상자, 것 - 2개 / 깔끔하다(형용사), 정돈되다(동사)

③ 친구, 외, 사람 - 3개 / ‘외’는 의존 명사

④ 모퉁이, 얼굴, 이 - 3개 / ‘이’는 의존 명사

14. [어휘/한자 표기] 난이도 中

③ 충분(充分)히 :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게. 채울 충 / 나눌 분

[오답풀이]

① 규정(規正)(×) → 규정(規定)(○)
 규정(規正) : 바로잡아서 고침
 규정(規定) : 규칙으로 정함

② 구조(救助)(×) → 구조(構造)(○)
 구조(救助) : 재난 따위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구조(構造) : 부분이나 요소가 어떤 전체를 짜 이룸.

④ 현상(懸賞)(×) → 현상(現狀)(○)
 현상(懸賞) : 상금을 내걸
 현상(現狀) : 나타나 보이는 현재의 상태

15. [어휘/한자 성어의 쓰임] 난이도 中上

④ 後生可畏(후생가외) : 젊은 후학(後學)들을 두려워할 만하다는 뜻으로, 후진(後進)들이 선배들보다 젊고 기력이 좋아, 학문을 닦음에 따라 큰 인물이 될 수 있으므로 가히 두렵다는 말

[오답풀이]

① 口蜜腹劍(구밀복검) : 입으로는 달콤함을 말하나 뱃속에는 칼을 감추고 있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친절하나 마음속은 음흉한 것

② 一敗塗地(일패도지) : 싸움에 한 번 패하여 땅에 떨어진다는 뜻으로, 한 번 싸우다가 여지없이 패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함

④ 首鼠兩端(수서양단) : 구멍 속에서 목을 내민 쥐가 나갈까 말까 망설인다는 뜻으로, ① 거취를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모양

② 어느 쪽으로도 붙지 않고 양다리를 걸치는 것을 이르는 말

16. [화법/주장 분석] 난이도 中

지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수의 주장 : 개인의 책임을 은행에 떠넘기는 데는 문제가 있다.

민수의 주장 : 개인의 책임을 인정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을 정부가 찾아야 한다.

따라서 ②, ③, ④는 적절하지 않다.

17. [독해/중심 내용] 난이도 中

‘위기’의 뜻을 서양과 동양으로 나누어 해석했다.

서양인들은 위기가 왔을 때 그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찾으면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았다.

동양인들도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의미를 드러낸 선지는 ②이다.

18. [문학/설화문학] 난이도 下

③ 만아들 대소는 주몽을 질투하여 죽이도록 왕에게 주청한다.

19. [독해/내용 파악] 난이도 中

자유로부터의 도피란 개인적 자아의 독립을 포기하고 다른 존재에게 복종하거나 또는 상대방을 자신에게 복종시키고자 하는 태도를 지칭한다. ③은 언론 매체라는 권위적 존재의 의견에 복종하는 태도를 말하므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속성에 해당한다.

20. [독해/논지 전개 방식] 난이도 中上

② 난해한 용어의 정의를 제시한 대목이 없다.

[오답풀이]

① 3문단은 문답법을 사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③ 1문단에 나타나 있다. ‘가령 ~ 들어 보자. 일견 수긍되는 점이 있다. ~ 그러나 ~ 설명할 수가 없다.’

④ 2문단에서는, 시가를 피우는 사람은 전혀 제약받지 않음을 기술하고 있다. 시가를 피우는 사람에게는 관대하면서, 특별히 권련을 피우는 사람에게는 제재를 가하는 특정 현상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총평]

1. 총 3쪽(8문항 - 8문항 - 4문항 배치)

2. 출제 영역

문법 4문항 / 어휘 5문항 / 독해(비문학) 5문항 / 문학 3문항 / 작문 1문항 / 화법 2문항

- 고교 국어 영역은 ‘독해(비문학, 독서), 문학, 작문, 화법, 문법’ 등으로 나뉜다. 그동안 공무원 시험에서는 ‘작문, 화법’의 출제가 드물었는데 이번 지방직 시험에서는 골고루 출제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의 출제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겠다. 문법 출제가 상대적으로 적어졌으나 작문 고쳐 쓰기 문제를 문법 영역에 넣으면 5문항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3. 문법 : 합성어, 명사 / 맞춤법, 띄어쓰기 / (고쳐 쓰기)

폭넓은 출제가 되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쉽다. 만점을 받아야 한다.

어휘 : 한자 독음 / 한자 표기 / 한자어 사용 / 한자 성어 / 속담

역시 한자어가 공무원 시험의 성패를 가른다. 속담은 쉬웠지만, 한자어 문제는 만만치 않았다.

독해 : 언어의 특성, 제목, 중심 내용, 내용 파악, 논지 전개 방식

난이도 중에 해당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문학 : 1920, 30년대 소설 2편, 신화

어렵지 않았다.

작문 : 고쳐 쓰기(퇴고) 요령

어법의 종합적 문제로 수준급이었다.

화법 : 토의, 토론 2문제

내용 파악의 출제였다.

4. 난이도 上 없음 / 中上 4문항 / 中 10문항 / 下 6문항

5. 전체적으로 쉽다는 인상이다. 만점을 목표로 하고 시험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실수는 있을 수 없다.

작문, 화법 영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한다.

어휘, 특히 한자 읽기, 쓰기, 성어 등은 매일같이 학습해 나가야 한다. 어쩌면 공무원 국어 시험은 어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필승의 마음! 공부는 정신력으로 하는 것이다.!